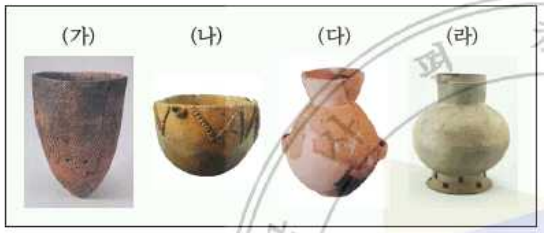
1. 다음 토기들을 제작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다) - (나) - (가) - (라)
⑤ (다) - (나) - (라) - (가)

정답: ③

* 역대 토기

(가) **빗살무늬 토기**(신석기 대표)
(나) **덧무늬 토기**(신석기 초기)
(다) **미송리식 토기**(청동기)
(라) **대부 장경호(臺付長頸壺) 토기**(신라)

<토기의 발달 순서>

• **신석기 초기**: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압인문 토기)

•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 **신석기 말~청동기 초**: 덧띠새김무늬 토기

• **청동기**: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화분형.팽이형), 붉은 간토기

• **청동기 말 ~초기 철기**: 가지무늬 토기

• **철기**: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 **삼국 시대**: 대부 장경호, 토우장식 장경호

* 장경호: 받침대가 있는 긴목 항아리

2. 고대 한국과 서역의 문화 교류를 보여 주는 유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 기〉

ㄱ.

ㄴ.

ㄷ.

ㄹ.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서역과의 교류 관련 자료

신라가 통일 후 번영을 누리던 8~9세기에는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한 동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신라는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서 동서 교역을 연계하여 중국·서역 물품이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신라의 활발한 대외 교류 모습과 귀족 생활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다.

㉠ 서봉총(미추왕릉) 출토 **유리로 된 그릇 도기:** 로마-서역 계통

㉢ 경주 계림로 출토 **금제감장보검**(金製嵌裝寶劍): 보물 635호로,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 서역 장식 보검. 유럽 켈트계 칼로 보는 학자도 있다.

㉡ 신라 기마인물토기: 말과 인물의 형식이 매우 유사한 두 점의 토기중 하나로 경주 금령총(金鈴塚)에서 출토되었다.

㉣ 금동대향로: 부여 능산리고분에서 출토된 도교적 이상향을 표현한 유물

3. 다음 비문 내용의 정복 활동 결과로 나타난 한반도의 정세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395년, 친히 병력을 이끌고 거란을 정벌함.
- 396년,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쳐서 58성과 7백 촌을 획득함.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아신왕으로부터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다."라는 항복을 받아 냄.
- 400년, 백제·가야·왜의 연합군이 신라를 침략하자, 기병과 보병을 보내 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토벌함.
- 404년, 옛 대방 지역으로 진출한 왜군을 섬멸함.

〈보기〉

ㄱ. 신라에서는 실성왕에서 눌지왕으로 왕위가 교체되었다.
ㄴ. 백제는 신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다.
ㄷ. 전기 가야 연맹이 약화되어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ㄹ. 대가야는 백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신라와 대결할 만큼 성장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광개토대왕 당시의 한반도 정세

광개토대왕(391~413): 이름은 담덕(談德), 완전한 묘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생존시의 칭호는 영락대왕(永樂大王)이었다. 또한 그가 쓴 영락(永樂)이란 연호는 한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연호이다.

소수림왕의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최대의 영토를 확장한 정복 군주로서 즉위 초부터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과 예성강 이동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400년에는 신라 내물왕의 요청으로 5만의 원군을 보내어 왜구를 격퇴시켰으며. 이로 인해 금관 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이 약화되고(가야: 낙동강 서쪽으로 축소, 신라: 낙동강 동쪽 확보), 또한 도움을 받은 신라를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시켰다.

또 요동 지역으로는 후연을 굴복시켰으며 410년에는 동부여(東夫餘)를 정벌하여 64성을 공파함으로써 동부여가 고구려의 판도 안에 들게 되어 만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그의 능은 소재 미상이나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광개토대왕릉비(길림성 집안 소재)에는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 눌지왕(재위 417~458): 고구려의 볼모(392) 출신인 18대 실성왕은 그 원한으로 내물 마립간의 아들인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었고(412), 또 다른 아들이었던 눌지까지 볼모로 보내고 고구려인을 시켜 살해하려다가 오히려 눌지가 고구려의 지원으로 쳐들어와 실성왕을 제거하고 신라 제19대 왕이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볼 수 있다.

㉡ 내물왕 때의 광개토대왕의 신라 원조로 인해 신라는 고구려와 밀접하게 의존하게 되므로 틀리다. 허나 눌지왕과 비유왕은 433년에 나제 동맹을 맺으며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하였므로 이 진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522).

4. 다음 기록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병술일이 초하루인데)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계유일이 초하루인데)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뫼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①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왕흥사를 지었다.
②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③ 북위에 표를 올려 고구려를 협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어 이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⑤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동이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천명하였다.

정답: ⑤

* 백제 무령왕의 업적(6C초)

무령왕: 백제의 제 25대 왕(재위 501~523). 웅진으로 천도 후 혼란한 백제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구 귀족세력을 등용하여 신구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왕권을 안정화시켜 나갔다. 또, 22담로에 왕족들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 고구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즉위하던 해인 501년에 달솔 우영을 보내 고구려의 수곡성(水谷城)을 공격하였고, 이듬해에도 고구려의 변경을 공격했다.

512년 중국 양나라에 조공하였으며, 같은 해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가불(加弗)·원산(圓山)의 두 성을 빼앗았다.

521년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동이의 강국이 되었다" 선언하였다. 이에 양나라의 무제(武帝)는 무령왕을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 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에 책봉하였다.

1971년 무령왕과 왕비가 합장된 능이 충남 공주에서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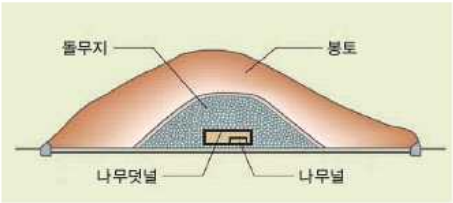
① 왕흥사 건설: 백제 위덕왕(577)

② 사비 천도: 백제 성왕(538)

③ 북위에 걸사표: 백제 개로왕(472)

④ 나.제 혼인 동맹: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493)

5. 다음은 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무덤의 단면도이다. 이 양식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로 옳은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⑤

* 신라 천마총과 천마도

제시된 자료는 돌무지덧널무덤인 신라 천마총의 단면도이다

돌무지덧널무덤: 신라에서 주로 만든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묻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천마총: 경주 황남동 고분군에 있는 신라 22대 지증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고분이다. 천마도(국보 제207호), 금관(국보 제188호), 금모(국보 제189호) 등의 많은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다.

천마도: 자작나무 껍데기를 겹쳐서 만든 말의 배 가리개(장니:障泥)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그렸다. 천마총에서 발견됨

①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경남 의령에서 출토되었으나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고구려의 불상으로 연가 7년(延嘉七年)의 연대까지 뚜렷하게 각자(刻字)되어 있고 북조의 영향을 받은 듯한 특징이 있다.

② **백제 금동 대향로:** 1993년 부여 능산리 절터의 서쪽 한 구덩이에서 출토된 향로로서 도교적 이상향과 백제의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을 알 수 있다.

③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 공주 송산리 고분 무령왕릉(7호)에서 출토된 무덤 수호의 신상(神像). 국보 162호

④ **평남 강서 대묘 사신도 중 현무도**: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6.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이나 호구가 현에 미달하는 것은 ㉠향·부곡을 두어 소재읍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에는 또한 ㉡소라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 종류의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건을 바쳤다. 또, ㉢처·장이라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각각 궁전과 사원 및 내장택에 소속되어 세를 바쳤다. 위의 여러 곳에는 모두 ㉣토성이민(土姓吏民)이 있었다.

① ㉠의 주민도 일반 군·현민과 마찬가지로 3세(稅)라 불리는 국역을 부담하였다.
② ㉡에서는 광산물이나 수공업품 이외에 해산물 등도 부담하였다.
③ ㉢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법제상 천인으로 천시되었다.
④ ㉣은 군현의 향리와 같은 존재로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⑤ ㉠, ㉡은 조선 시대에 점차 소멸하여 일반 군현으로 편입되었다.

정답: ③

* 고려의 특수 행정 구역(향.소.부곡.장.처 등)

고려에는 군현 아래에 향, 부곡, 소와 장(莊), 처(處) 등의 특수 행정 조직이 있었다. 향, 부곡은 대체적으로 전쟁 포로의 집단적 수용지나, 또는 본래 군·현이었던 곳이 반역 및 적에의 투항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그 격이 강등되어 생겨났다. 향과 부곡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공과(公課), 공역(公役)을 부담하였다. 한편,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 은, 동, 철 및 자기, 종이, 먹 등 특정 공납품을 생산하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들 주민들은 신량역천이라 보면 되겠다

* **장(莊), 처(處)**: 왕실이나 사원 등에서 직영하는 장원이라 보면 됨. 여기의 경작 주체는 농민이고 다만 조를 국가가 아닌 왕실 사원 등에 내는데, 단 처(處)의 주민은 처간(處干)이라 하여서 천하게 취급받았지만(신량역천) 법적으로는 양인임은 분명하다.

① 3세(稅)란 조세.공납.역을 말하며 향.부곡 주민들은 부담이 일반 군현민에 비해 많을 뿐이지 부담하는 것은 동일하다.

② 소(所)는 주로 왕실이나 관아에 필요한 수공업, 광업, 수산업 분야의 공물을 생산하였다.

④ 토성이민(土姓吏民)이란 토착 관리 즉 향리와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다.

⑤ 조선은 향.소.부곡 등의 특수부락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군현으로 편입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7. 밑줄 그은 '이 나라'의 유물로 옳은 것은? [2점]

○○ 일보
△△년 △△월 △△일

최근 효의 황후와 순목 황후의 묘지(墓誌)가 발굴되었다. 이와 함께 금제 관식이 발굴되었는데, ○○○ 교수는 "새 날개의 이미지를 세 가닥의 식물 이파리처럼 도안화한 금제 관식은 조우관의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라며 "금제 관식에 새겨진 물고기알 모양이나 구름무늬, 인동당초무늬 등의 정교한 문양은 이 나라의 금속 공예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②

* 발해의 문화

• 보기의 자료는 지린성 허룽시 룽하이 마을 룽터우산(용두산) 고분군에 있는 발해 왕실 무덤에서 고구려 조우관(鳥羽冠)의 전통을 계승한 금제 관식이다.

발해국 3대 문왕(재위 737~793년)의 황후 효의왕후와 9대 간왕(재위 817~818년)의 황후 순목황후의 묘지(墓誌)가 출토됐다. 그런데 순목황후의 묘지에는 "발해국 순목황후는 간왕의 황후 태(泰)씨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발해에서도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많은 불상이 제작되었다.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상도 발굴되었다. 이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이불병좌상).

이와 아울러 발해에서는 자기 공예도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발해의 자기는 가볍고 광택이 있는데, 그 종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발해의 조각은 궁궐 터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발해의 벽돌과 기와 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상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석등은 발해 석조 미술의 대표로 꼽힌다.

①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통일 신라)
② 발해 석등(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상경)
③ 법주사 쌍사자 석등(통일신라)
④ 연곡사 동부도(통일신라 말)
⑤ 개성 만월대 용머리 석조물(고려)

8. 밑줄 그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고려 시대 공예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고려 시대에는 뛰어난 공예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공예 기술이 발달하여 표면에 홈을 파고 특수한 물질이나 물감을 넣어 아름다운 무늬와 그림의 효과를 얻어 내는 수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보기〉

ㄱ.

ㄴ.

ㄷ.

ㄹ.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 고려의 은입사, 상감 기술, 나전칠기 공예품

고려의 금속 공예 역시 불교 도구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어 무늬를 장식하는 은입사 기술이 발달하였다. 은입사로 무늬를 새긴 청동 향로와 버드나무와 동물 무늬를 새긴 청동 정병이 대표작이다.

한편, 옻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나타내는 나전 칠기 공예도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불경을 넣는 경함, 화장품갑, 문방구 등이 남아 있다. 나전 칠기 공예는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상감법(象嵌法): 나전 칠기나 은입사 공예에서 응용된 것으로, 그릇 표면을 파낸 자리에 백토, 흑토를 메워 무늬를 내는 방법

㉠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 청자상감 운학무늬 매병

㉢ 나전 대모 국당 초문 염주함: 고려시대 나전칠기는 세공이 뛰어나며, 정교한 불교 공예품들로서 염주함, 불경함, 모자합 등이 있고 국당초문 혹은 모란당초문 끊음질 등 복채한 대모, 금속선까지 곁들인 것이 특징이다.

㉠, ㉡, ㉢은 모두 은입사나 상감을 통해 공예품에 무늬를 새겨 넣었으나, ㉣은 그릇에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다

9.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그는 1360년(공민왕 9)에 과거에서 제1인으로 뽑혔으며, 1367년에 예조 정랑으로 성균박사를 겸하였다. 이때 경서가 고려에 들어온 것이 「주자집주」뿐이었는데, 그가 강설함이 빠르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뛰어나므로 듣는 자들이 자못 의심하였다. 그 후에 호병문의 「사서통」을 얻음에 미쳐 그의 말과 합치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여러 선비들이 탄복하였다.
>
> -「고려사」 열전 -

①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②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원조라고 일컬어졌다.
③ 「오경천견록」 등 경전을 주석한 책을 지었다.
④ 자신의 호를 주자와 비슷한 회헌이라 지었다.
⑤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세족 출신이었다.

정답: ②

* 성리학자로서의 정몽주(1337~1392)

고려 말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신진사대부 중 온건파를 이끌며 급진파(혁명파)와 대립하다 이방원(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성리학에 밝아 주자가례를 따라 사회윤리와 도덕의 합리화를 기하며 개성에 5부 학당과 지방에 향교를 세워 교육 진흥을 꾀하는 한편 대명률을 참작, 신율(新律)을 간행하여 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외교와 군사면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즉 그는 불교국가였던 고려를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형태로 탈바꿈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비록 실패했으나, 정도전 등에게 그 뜻이 이어져 유교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 조정을 탄생시켰다. 성리학에 뛰어나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시조로 추앙되었다.

① **만권당**: 고려 말의 충선왕이 원나라 연경에 세운 독서당. 이제현, 박충좌 등이 원의 조맹부 등과 교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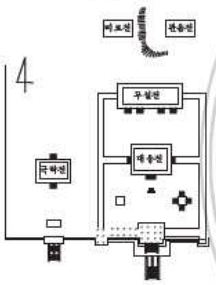
③ **오경천견록**: 권근(여말선초 성리학자)이 지은 오경(五經) 주석서이다.

④ 회헌 안향: 고려 말 충렬왕 때의 성리학의 최초 도입자(1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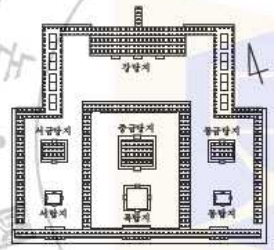
⑤ 정몽주는 신진사대부임

10. (가), (나)의 사찰과 관련된 자료를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나)



〈 보 기 〉

ㄱ. 제31대 신문 대왕의 이름은 정명이요 김씨이다. …… 돌아가신 아버지 문무 대왕을 위하여 동해 가에 ○○사를 세웠다.

ㄴ.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불사를 세워, 신림과 표훈 두 성사(聖師)를 청하여 각각 거처하게 하였다.

ㄷ.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계유 2월에 새로 대궐을 용궁 남쪽에 지으려할 때에 거기에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사로 고치고, 기축년에 담을 쌓아 17년 만에 완성하였다.

ㄹ. 하루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아래의 큰 못가에 이르렀을 때, 못 가운데서 미륵 삼존이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공경의 예를 취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이르되, 나의 소원이니 이곳에 큰 절을 이룩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① (가) - ㄱ, (나) - ㄴ　② (가) - ㄱ, (나) - ㄷ
③ (가) - ㄴ, (나) - ㄹ　④ (가) - ㄷ, (나) - ㄴ
⑤ (가) - ㄷ, (나) - ㄹ

정답: ③

* 불국사와 미륵사 배치도

(가) **불국사**: 전체적 건축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다보탑과 석가탑, 무설전 등의 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 연화교, 안양문 등이 있는 구역이다.

(나) **미륵사**: 백제 사원의 전형적인 가람으로 남북 중심축 선상에서 남에서부터 중문, 탑, 금당, 강당을 배열하여 중문과 강당 사이를 연결한 회랑으로 둘러막은 소위 1탑식 가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람을 동서로 나란히 3개소를 지었으되 강당은 중앙 우측에 하나만 두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각 가람의 마당에는 탑을 건립하였는데, 중앙에 있는 목탑이 가장 컸으며, 좌우에 있는 탑은 석탑으로 세웠는데 현재 서탑 만이 남아 있고 동탑은 소실되었으나 복원되었다

㉠ 감은사(신문왕)

㉡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을 건축하였다(경덕왕)

㉢ 황룡사(진흥왕)

㉣ **미륵사**: 익산 금마면 용화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았음 추정 규모로는 한국 최대의 사찰지이다. 601년(백제 무왕 2)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여기서 왕은 백제 무왕(아명: 서동)과 부인은 신라 선화공주(신라 진평왕의 딸)의 설화로 유명한 사찰이다

11. 다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2점]

○ 행사 위치 : 개경 만월대, 의봉루 앞마당
○ 행사 시기 : 11월 보름 전후 사흘 동안
○ 행사 진행 순서 :
• 13일 준비일
• 14일 소회일
: 대관전과 의봉루 사이에 3천여 명의 화려한 복장의 호위 군사를 진열하고 태조 영정에 술을 올리며 연회와 조하 의식을 행하였다.
• 15일 대회일
: 의봉루로 행차하여 문무백관들과 봉표원들로부터 축하 표문과 축하주를 헌수받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송나라 상인과 여진, 탐라, 왜에서 파견된 사신들이 축하 표문과 특산물들을 바쳤다.

① 초제 ② 팔관회
③ 연등회 ④ 점찰법회(占察法會)
⑤ 백고좌회(百高座會)

]

정답: ②

* 고려의 팔관회

팔관회는 고려 때에 왕건의 훈요십조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된 불교+토속신앙+도교적 성격의 행사이다.

이는 송(宋) 상인이나 여진(女眞) 및 탐라(耽羅)의 사절이 축하의 선물을 바치고 무역을 크게 행하는 국제적 행사였다. 팔관회의 의식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팔관보(八關寶)를 설치하였다.

①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참성단(조선은 삼청전)에서 일월성신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시행되었다.

③ **연등회**: 부처의 탄신을 기념하는 최대의 불교 행사

④ **점찰법회**: 불교의 <점찰경>의 내용에 따라 개최하는 참회 법회.

⑤ **백고좌회**: 불교에서 행하는 호국 법회.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읽으면서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불교 법회. 줄여서 백고좌회라고 하며, 인왕반야도량(仁王般若道場)·인왕회(仁王會)·백좌강회(百座講會)·백좌법회라고도 한다.

12. 다음은 어느 학생의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충 자료〉를 첨부할 때에 가장 적절한 곳은? [3점]

보고서

○○○

고려 초기에는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하였다. 그 후, 11세기에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무신 집권 이후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또, 그는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눌 이후에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 보충 자료 〉

보통 사람은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입어 바른 길에 들어가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면, 여러 부처와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은 본성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음을 안다. 하지만, 깨달은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계속된 습관들을 갑자기 버리기 어렵다. 깨닫고 닦음에 의하여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성인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

* 고려 불교의 흐름(지눌의 사상)

•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 고려 초기 균여는 上求菩提(위로는 깨달음의 진리를 추구하고) 下化衆生(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라)을 행하라고 하여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하는 화엄종을 펼쳤다.

㉡ 교관겸수(敎觀兼修,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려는 통합 이론)를 주창한 사람은 고려 전기 의천이다.

㉢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선과 교학을 나란히 수행하되,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자는 이론이다.

㉣ 돈오점수(頓悟漸修)는 단번에 깨닫고 꾸준히 실천하자는 주장을 일컫는다.

㉤ 지눌의 제자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3. 다음 사진의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1377년, 직지사에서 간행되었다.
② 문헌상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③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하였다.
④ 현재 이 책의 원본은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⑤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정답: ⑤

* 고려 말 현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1377)

• 책 표지의 한자어 '직지(直指)'가 힌트이다

직지심체요절: 1372년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게송(偈頌)·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을, 경한의 입적 후인 1377년 청주목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이 초간본(初刊本)이 된다. 상하 2권 중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권 1책(첫 장은 결락)뿐이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② 문헌상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전해지는 '상정고금예문'이다(1234)

③ 조선 초의 활판 인쇄술이다: 세종 때에는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

⑤ 직지가 프랑스로 넘어간 것은 대한제국 말기이다.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재임 1890년~1903년)가 직지를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갔다. 모리스 쿠랑(1865~1935)이 1901년에 저술한 `조선서지`의 보유판에 게재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1900년께에는 이미 수집된 것으로 추측된다. 플랑시는 우리나라에서 수집해 간 대부분 고서를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했는데 직지는 앙리 베베르(1854~1943)가 18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1950년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 후 직지의 존재는 잊혀졌다가, 재불 서지학자로 프랑스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씨에 의해 발견되어 20여 년이 지난 1972년 5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책의 역사' 전시를 통해 그 존재가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곧바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받았고 2001년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프랑스와 반환 협상이 지루하게 전개되고 있다.

14. 다음 글에서 보이는 친속 의식과 관련된 사회 현상은? [2점]

> 옛날에는 사람이 장가를 가서 부인을 맞이하여 왔기 때문에, 처가에 힘입을 바가 얼마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부인을 취함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니, 무릇 내 몸에 쓰이는 것을 처가에 의지하였으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도다.
>
> -「동국이상국집」-

①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②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두어 가계를 계승하게 하였다.
③ 사위와 외손자에게는 음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④ 족보에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아들을 먼저 기재하였다.
⑤ 이모부는 같은 관청의 소속을 피해야 하는 상피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답: ①

* 고려 시대의 혼인 가족제도

• 출전 '동국이상국집'과 남자가 여자집에서 신혼을 맞이하는 '남귀여가'의 혼인제도를 통해서 고려시대임과,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고려시대에는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④ 조선후기 적장자 위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습

⑤ 상피제는 고려 시대에 성문화되었다.. 1092년(선종 9) 오복친제에 바탕을 두고, 송나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본족(本族)·처족(妻族)·모족(母族)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고, 특별히 권력의 핵심인 정조(政曹)와 대성(臺省)에는 사돈 간에도 적용되었다. 부계와 모계가 똑같이 중시된 고려의 양측적 친족제도를 반영하여 모족과 처족이 본족과 같이 취급된 것이 특징이다.

15. 다음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최충이 졸하였다. …… 현종이 중흥한 뒤로 전쟁이 겨우 멈추어 문교(文敎)에 겨를이 없었는데, 최충이 후진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니, 여러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드디어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진덕, 대화, 대빙이라는 9재로 나누었는데, 시중 최공도라고 일렀으며, 무릇 과거를 보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도(徒)에 들어가서 배웠다. 해마다 더운 철이면 귀법사의 승방을 빌려서 여름 공부를 하며, 도 가운데에서 급제한 자로 학문은 우수하면서 벼슬하지 않은 자를 골라 교도로 삼아 구경(九經)과 삼사(三史)를 가르치게 하였다. —「고려사절요」—

① 시중 최공도는 그의 사후에 홍문공도라고 불렀다.
② 최충이 세운 사학은 무신 정권기에도 존립하였다.
③ 사학의 설립자는 모두 과거 장원 급제자들이었다.
④ 사학 12도 가운데에서 일부는 서경과 동경에 세워졌다.
⑤ 사학의 발달로 공립 교육 기관인 국자감은 폐지되었다.

정답: ②

* 고려 최충의 9재 학당(문헌공도)과 사학의 융성(사학 12도의 융성)

9재 학당: 구재학당(九齋學堂)은 고려 때 사학(私學)의 하나로서, 문헌공도(文憲公徒)라고 불리기도 한다.

문종 때의 명유(名儒) 최충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후진 양성을 위해 개설한 사숙(私塾)으로서, 당시 국학(國學, 국자감)은 시설 면으로나 교육 면으로 유명무실했으므로 많은 과거 응시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다.

9재 학당은 악성(樂聖)·대중(大中)·성명(誠明)·경업(敬業)·호도(浩道)·솔성(率性)·진덕(進德)·대화(大和)·대빙(待聘) 등 아홉 개의 학반(學班)으로 나누었다. 학과는 5경과 3사를 중심으로 하고 시부사장(試賦詞章)의 학을 더하였다. 최충이 죽은 뒤 시호(諡號)에 따라 이 학당을 문헌공도라 했으며, 과거 응시자의 준비 기관이 되었다

① 홍문공도는 사학 12도 중의 하나이며 정배걸이 세웠다

② 예종 이래 국학 부흥에 힘을 기울이자, 도(徒)는 국학에 흡수되고 고려 말(1391)에 폐지됨. 따라서 무신 정권기에는 존재하였음

③ 사학의 설립자는 학업 지망생이나 과거 응시자가 권위 있는 유학자가 세운 것이지 꼭 과거 장원 급제자는 아니었다

④ 서경(평양), 동경(경주)에 사학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⑤ 사학의 발달로 관학(국자감)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고 여러 관학 진흥책이 나왔다.

16. 다음 탑이 만들어진 시기의 지배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재추가 되면 도평의사사의 구성원이 되었다.
② 중국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
③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④ 중국에 가서 과거에 합격하고 귀국하여 출세하는 자도 있었다.
⑤ 유학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교를 신봉하기도 하였다.

정답: ②

* 고려 후기의 지배층 (원의 간섭기 이후)

• 사진의 자료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1348): 고려 후기 때의 대표적 석탑,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고려 후기 원의 간섭기이니까 무조건 권문세족만 지배층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관인층도 지배층에 속한다.

즉 음서는 세족층이 관료 배출을 지속시키면서 문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으나, 과거로 진출하는 것이 음서로만 진출한 것보다 여러 가지로 유리하였기 때문에 세족층은 음서로 진출하고 나서도 상당수의 관료는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① 고려 후기에 도병마사(재추회의)가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 되었다

② 고려 시대는 원칙적으로 일부일처임. 일부 상류층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취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음

③ 권문세족 등이 대농장을 형성 -> 농민 몰락

④ 원에 가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1318년에 안진, 1321년에 최해, 1324년에 안축, 1333년에 이곡, 1346년에 안보, 1347년에 윤안지, 1349년에 이인복, 1353년에 이색·김승언 등 아홉 사람이 있다

⑤ 권문세족은 대부분 불교를 신봉했지만 무신집권기 이래 새로이 형성된 '능문능리'의 신관인층의 경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출신도 있었다(예: 민영모의 여흥 민씨와 조영인 등의 횡천 조씨)

17. 다음 지도를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경복궁 앞쪽에 6조 거리가 형성되었다.
② 명당수인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③ 정궁인 경복궁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배치하였다.
④ 최고 교육 기관이었던 성균관에는 문묘가 설치되었다.
⑤ 백악, 낙산, 목멱산, 인왕산을 연결하는 성곽을 쌓았다.

정답: ②

* 조선의 수도 서울(한양)의 모습

천도 이후 한양에는 각종 공사가 잇따라 시행되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조정과 시장 또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다. 성곽은 궁궐과 종묘가 완공된 이후에 건설되었다. 가장 먼저 서쪽에 사직(社稷)을 완공하고, 궁궐을 세운 뒤, 그 동쪽에 종묘(宗廟)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광화문 앞에 육조관서(六曹官署)를 배치하고, 운종가(종로)를 두어 시전을 배치하였다.

① 경복궁 앞쪽으로 난 도로(세종로)는 '육조 거리'라고 불리며 의정부와 6조를 비롯한 여러 관청들이 모여 있었다

② 한강은 사대문 밖 즉 도성 밖에 있다. 도성을 가로지르는 하천은 청계천이다.

③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이 있다.

④ **문묘**: 유교의 성인(聖人)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으로서 중앙에는 성균관에 지방 군현에는 향교에 설치되었다.

⑤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둘레는 약 17km, 면적은 59만 6812㎡. 1396년(태조 5)에 축성. 성벽은 백악(白嶽)·낙산(駱山)·남산(南山)·인왕산(仁王山)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18. 다음 자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입을 청하는 자는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반드시 단자에 자세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① 지방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② 기묘사화로 인해 일시 폐지되었다.
③ 주민 통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④ 조직에 가입된 회원 명단은 그대로 청금록에 기재되었다.
⑤ 율곡 이이는 이것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용하여 실시하였다.

정답: ④

* 조선 중기 향약의 보급(제시 자료: 이이의 율곡전서에 나오는 해주 향약 입약 범례문)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여씨향약, 기묘사화 때 일시 폐지), 이황(예안향약)과 이이(서원향약, 해주향약)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주민 통제).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6 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서원도 향약과 함께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④ 청금록은 조선 시대의 성균관·향교·서원 등에 있던 유생들의 명부로서 유안(儒案)이라고도 불리운다.

⑤ 이이는 여씨 향약 및 예안 향약을 근거로, 서원 향약과 이를 자신이 수정 증보하여 1577년에 해주 향약을 만들었다.

19.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경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기〉

ㄱ. 근래 소민(小民)들이 농사를 게을리하고 이익을 탐하여 광작을 하며 그 형세가 매해 늘어나 여러 도에 퍼져 있다.

ㄴ. 각도의 수전(水田), 한전(旱田)의 소출 다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공법(貢法)에서의 수세액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ㄷ.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ㄹ. 장사꾼이 의복 등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 갓끈, 빗, 바늘, 분(粉) 같은 물품을 가지고 무지한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여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조선 초기(세종:1418~1450))의 농업기술과 농서

조선 초기의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리 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1429), 금양잡록(1492)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특히, 농사직설은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양반도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높았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 년 3 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모내기는 봄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쟁기, 낫, 호미 등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목화 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되었다.

㉡ 공법(貢法)은 답험손실법 시행에 따라 답험관인 향리·토호의 중간부정이 극심해지자 이를 근절시키고, 일률적인 조세제도 운영을 통해 국고의 증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답험손실법의 재검토와 결부제의 전환 그리고 전분 6등법과 연분9등법을 가져온 새로운 세법이다.(1444)

㉣ 세종 실록에 나온 상업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다.(조선은 기본적으로 중농억상 정책)

㉠, ㉢의 광작, 상품 작물의 유행 등은 조선 후기

20. 다음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내부에 문묘, 명륜당 및 중국과 조선의 선현을 제사 지내는 동무, 서무와 기숙사격인 동재, 서재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5~7결의 학전을 지급하여 운영 경비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것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 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였다.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①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였다.
②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 교육 기관이었다.
④ 국가로부터 사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⑤ 조선 초기에 처음 설립되어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정답: ①

* 조선의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 향교

향교: 고려, 조선의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 지방의 문묘와 그에 속한 학교로 구성된다.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향교도 성균관의 하급 관학으로서 문묘·명륜당 및 중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와 동재(東齋)·서재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부·대도호부·목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 6품의 교수와 정 9품의 훈도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향교에는 정부에서 5~7결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교는 임진·병자의 양란과 서원의 발흥으로 부진하여 효종 때에는 지방 유생으로서 향교의 향교안(鄕校案)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자는 과거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 등의 부흥책을 쓰기도 하였다.

② 성균관의 입학 자격
③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국립교육기관은 없고 사립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서당은 있음
④ 서원에 대한 설명
⑤ 고려 시대에 처음 향교가 설치되었다(성종: 992)

21. 다음은 국사 시간의 수업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1점]

선생님 : 오늘은 한국 전근대의 조세 수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각자 조사해 온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갑 : 통일 신라 시대에는 인구, 토지, 유실수 등을 조사하여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어요.
을 : 고려 시대 민전을 소유한 농민은 수확량의 2분의 1을 국가에 납부했어요.
병 : 요역은 「경국대전」에 토지 8결당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로 제한하였지만 지켜질 수 없었어요.
정 :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상공, 별공, 진상을 현물 대신 쌀이나 돈으로 납부하게 되었어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정답: ②

역대 조세 제도

갑: 신라 **민정문서**
촌락의 연령별.성별 인구수, 토지, 과실(유실수)등을 촌주가 3년마다 작상한 공적 문서. 조세와 역을 부과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호적과 토지대장(양안)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을: **민전**
일반 농민들의 사유지로서 매매.상속.증여가 가능하며 1/10을 국가에 세로 납부하였다. 때로는 관리들의 과전이 선포되어 1/10의 조를 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1/2을 국가에 냄은 틀리다

병: **요역**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서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

정: **대동법**
공납의 개혁으로서 가호별 부과를 토지면적별로 부과하고 특산물 대신 쌀.포.돈으로도 납부케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인 조세제도. 그러나 이는 상공에 대한 공물 수취의 개편일 뿐 별공.진상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22. 다음 주장을 했던 세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 서울에서는 홍문관과 육경(六卿), 대간(臺諫)에게 재주와 행실이 훌륭하여 관직에 등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궁궐에 불러 직접 정책에 대한 평소 생각을 시험한다면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종(祖宗)이 하지 않았던 일이요, 한(漢)나라의 현량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이요, 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니, 두 가지가 모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보기〉

ㄱ. 학풍은 사장 위주였고 중앙 집권 강화에 노력하였다.
ㄴ.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연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ㄷ. '주례(周禮)'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ㄹ. 내수사 장리의 폐지와 토지 집중의 완화를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조선 중기 사림세력

보기의 자료에서 '현량방정과'를 통해서 볼 때 이를 주장한 세력은 사림파임을 알 수 있다(사림의 대표 조광조 주창)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 사림 세력의 특징 >
- 고려 말 온건파 사대부에서 비롯
- 도덕정치와 향초자치를 목표로 함
- 학문적으로 경학 위주
- 서원과 같은 사학 중시
- '주자가례의', '소학'과 등의 개인 생활 규범 중시
- 존화주의적(기자 조선 강조)

㉠ 사장 중심, 중앙집권 추구는 훈구파

㉡ 언론활동과 경연 중시의 왕권제한의 특성은 사림의 특징

㉢ '주례'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통치규범 중시는 훈구파

㉣ '내수사장리'는 조선시대 왕실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성종 때에 홍문관과 대간이 비판한 것으로 보아 사림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23. 다음 조치와 유사한 목적의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상왕이 나이가 어려 대부분의 정책을 모두 의정부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이제 내가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고 직접 나에게 아뢰도록 하라.

〈 보 기 〉

ㄱ.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였다.
ㄴ.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하였다.
ㄷ.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ㄹ. 과거 제도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조선 초 6조 직계제(왕권 강화: 태종.세조 실시)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 왕조는 최고 합의기관인 의정부가 모든 국가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6조는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의정부서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6조의 판서는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왕권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던 태종과 세조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6조의 판서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6조 판서로부터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보고되지 않음으로 인해 의정부는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6조 직계제라 한다.

㉠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6조 직계제와 반대적 성격(세종 실시)이며 실질적으로는 신권의 강화를 보여 준다

㉡ 정동행성 이문소는 원의 간섭기구로서 왕권의 약화를 보여 준다

㉢ 토지+농민을 지배하는 녹읍을 폐지하고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급하는 관료전은 왕권의 강화를 보여 준다

㉣ 실력에 의한 전문적 관료 채용제도인 과거제도와 호족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농민들을 심사 환원케 하는 노비안검법은 왕권 강화의 일환이다(광종)

24. 다음은 창덕궁 안내도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 – 창덕궁의 정전으로 조정의 각종 의식이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곳이다.
② (나) – 편전이라고도 하며,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던 집무 공간이다.
③ (다) –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건물이다.
④ (라) – 정조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두었다.
⑤ (마) – 영조가 자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 지은 양반 저택이다.

정답: ⑤

* 조선의 궁궐 창덕궁 구조도

창덕궁은 금원을 비롯하여 다른 부속건물이 비교적 원형으로 남아 있어 가장 중요한 고궁의 하나이다.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가) <u>인정전</u>: 창덕궁의 정전(正殿). 신하들의 하례식이나 외국사신의 접견장소로 쓰임

(나) <u>희정당</u>: 국왕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편전). 왕과 왕후 및 왕가 일족이 거처함

(다) <u>대조전</u>: 왕비의 시어소, 곧 왕비가 기거하면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집이다. 왕비는 내명부라는 체제로 편제되어 있던 후궁과 궁녀 등 궁궐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공인이다. 그러한 왕비가 활동하는 공적인 건물이 대조전이다. 대조전은 창덕궁에서 가장 내밀한 곳 구중궁궐 깊은 곳 중궁전이다

(라) <u>주합루</u>: 창덕궁 후원의 연못과 연못 남쪽의 정자를 부용지(芙蓉池)와 부용정(芙蓉亭)이라 하며, 부용정 맞은편에는 주합루(宙合樓)와 규장각(奎章閣)의 2층 건물을 비롯하여 여러 건물들이 있다. 규장각은 정조 즉위년(1776년)에 지어졌다.

(마) <u>연경당</u>: 연경당(延慶堂)은 <u>순조 28년(1828년)에 창덕궁 후원에 지어진 집</u>으로, 왕궁이 아닌 상류 주택의 양식을 따라 지어졌다. 총 99칸이다.

④ 주합루의 규장각은 정조가 세운 학술기구로서 장용영(근위부대)과 함께 왕권강화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25.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기의 문화계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민족적이면서도 실용적 학문이 발달하였다.
② 서민이 창작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대두하였다.
③ 민생 안정을 위해 농업 관련 발명품이 만들어졌다.
④ 관학파 계열의 관료와 학자들이 문화계를 주도하였다.
⑤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초기 민족문화의 발달(15세기)

왼쪽: 천상열차분야지도
오른쪽: 일성정시의(남과 밤의 시간 측정 기구)

조선 초기에는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세종 때를 전후한 이 시기의 과학 기술은 우리나라 역사상 특기할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당시의 집권층(관학파)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학 기술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민족적)하면서 서역과 중국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① 민족적.실용적: 우리 실정에 맞는 성격 외에 주로 농업과 관련 있어 실용적임

② 서민문화 발달: 조선 후기(한글소설, 판소리, 민화, 풍속화, 사설시조, 청화백자 등)

③ 민생안정. 농업관련: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업 증진을 위해 역법(칠정산), 천문도(천상열차분야지도), 시보 장치(앙부일구, 자격루), 농서(농사직설), 측우기, 천문관측기구(혼천의), 토지 측량기구(규형: 인지의) 등이 발명됨

④ 관학파(훈구파): 조선 초기 정치 주도

⑤ 조선 초기에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고,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2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천사를 설치하였다.
② 개천 주변의 물난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③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하여 양쪽 제방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④ 도성 주민과 지방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진행하였다.
⑤ 도성의 물난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사산의 벌목을 금지시켰다.

정답: ④

* 조선시대 청계천 준천 공사

그림의 자료는 '어전준천제명첩' 이다

영조의 삼대 치적으로는 탕평 ·균역 외에 준천(濬川), 즉 청계천(淸溪川)을 준설한 것이 꼽힌다.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동안 준설하지 않아 홍수 때 범람이 잦아 1760년에 준천사(濬川司)를 세우고, 수만금을 출연하여 인부를 사서 흙을 파내는 대역사를 진행시켰다. 1773년 6월에는 개천의 양변을 돌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③ 자료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④ 이 공사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거나 민가를 밀어부치지도 않았으며, 충분한 재원확보와 적절한 임금체계를 통해 노동력을 수탈하지도 않았으며, 국왕이 직접 수차에 걸쳐 점검에 재점검을 하고 시찰도 거듭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하에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 공사를 하였던 영조의 위민정신에 입각한 공사였다.

⑤ 내사산(內四山)은 서울 도성을 둘러싼 북악산·남산·인왕산·낙산을 말하며 물난리 방지를 위해 벌목을 금지시켰다.

27. 다음 전시과의 개편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그간 정비를 거듭해 온 관제를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여 백관들에 대한 반열의 차서까지 정하고 있으며, 또 관리들이 국가에 대한 복무의 대가로 현물을 주는 녹봉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또, 양반 공음 전시법을 재정하고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토지 분급액이 증가하였다.
② 서리와 군인은 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현직이 아닌 치사직에도 토지가 지급되었다.
④ 4색 공복과 관계가 분급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⑤ 무반이 같은 품계의 문반보다 토지 분급액이 많았다.

정답: ⑤

* 경정 전시과(1076년, 문종)

경정전시과도 이전 전시과와 같이 18과로 나누어 분급했지만 몇 가지 사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한외과(限外科)의 소멸을 들 수 있다. 즉, 이전까지 18과에 속하지 못하고 토지를 받던 계층이 모두 과내로 흡수되었다. 이로써 전시과는 외형상 토지분급제도로서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산관(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한 관원)이 분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무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사라지고, 군인에 대한 대우도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품관은 아니지만 도필(刀筆 : 문서의 기록)의 임무를 띠고 말단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서리와 기능적인 잡역을 수행하는 잡로직(雜路職)은 15~18과에 속해 17~25결을 받았다. 반면에 지방 행정관청의 실무자인 향리에 대한 토지분급규정은 없었다.

① 시정, 개정, 경정 전시과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분급액이 감소되었다.

③ 치사직, 동정직, 검교직, 첨설직 등은 모두 산직이며 분급에서 제외되었다.

④ 4색 공복과 관계의 기준은 시정전시과의 특징

⑤ 전제인 개정 전시과에서는 무관의 최상위인 상장군은 제 5과에 위치하였으나 이번 신제에서는 제 3과로 올라갔다. 상장군은 같은 정 3품관인 6 상서보다 오히려 1과가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문관우위의 고려 전기 시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은 매우 주목된다. 이뿐 아니라 대장군·제위장군·제중랑장 등 이하의 무관 과등이 다 상승하였다. 군인도 무관의 상승과 발을 맞추어 그 과등이 올라갔다. 이것은 거란과의 가혹한 긴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국방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무관, 군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사료됨

28. 개항 이후 면포 생산의 변화 양상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면화 재배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나) 주로 면화 재배 지역의 농가에서 면포를 직조했다.
(다) 시장에 국내산 면사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라) 수입된 일본 방적사로 면포를 직조하는 공장이 등장했다.

① (가) – (나) – (라) – (다)　② (나) – (다) – (라) – (가)
③ (나) – (라) – (다) – (가)　④ (다) – (나) – (가) – (라)
⑤ (다) – (나) – (라) – (가)

정답: ②

* 개항 이후 면포 생산의 변화상

개항 이후 교역의 확대는 경제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역이 면제품을 들여오고 곡식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폐단이 매우 컸다. 값싼 외국산 면제품은 가내 수공업 위주로 이루어진 국내의 면공업 발전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고, 이에 따라 농민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또, 일본으로 쌀의 유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쌀 부족과 쌀값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인상이 나타나 도시나 농촌의 가난한 사람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출되었으며,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치 풍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주와 상인은 쌀 수출에 적극 가담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토지 매입에 투자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토지를 획득함으로써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또, 외국에서 실을 사 들여와 면직물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나) 개항 초기: 가내 수공업 형태로 면포 생산

(다) 일본이 영국산 면제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기에 국내산 면사 유통

(라) 일본의 면직 기술 발전과 무역 확대로 일본 방적사 유행.

(가) 일본산 면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면화 재배지 붕괴

29.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왕은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였다. 왕은 통치 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보기〉

ㄱ. 무위영 설치
ㄴ. 신해통공 시행
ㄷ. 완론 탕평책 실시
ㄹ. 「무예도보통지」 편찬
ㅁ. 초계 문신 제도 실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④

* 정조의 업적

(1) 적극적 탕평책 실시(준론 탕평책: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능력 중시(남인계 시파 중용, 서얼허통절목)

(2) 왕권 강화책:
장용영(친위부대) 설치
규장각 설치: 학술기구 -> 정치기구화
초계문신제: 신진관료를 직접 재교육
수원(화성) 육성: 화성 행차 ->여론 수렴
수령의 권한 강화: 향약 주관

(3) 신해통공(1791)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폐지 -> 사상의 발달

(4) 편찬사업
대전통편(법전), 동문휘고(외교), 탁지지(호조), 추관지(법령), 규장전운(한자운서) 등 편찬

㉠ 무위영은 장어영과 함께 개항기 때 설치된 군사기구(1881)

㉢ 완론탕평책(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은 영조의 업적

30. (가) 에 들어갈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은 (가) 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입에 공급하는 것이요, 도리와 덕행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써 이미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① 우리나라 최초로 영세를 받은 사람은 이승훈이었다.
② 안정복은 「천학문답」을 통하여 이 종교를 옹호하였다.
③ 17세기 중국을 방문한 사신들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④ 안동 김씨의 세도기에 탄압이 완화되면서 활발하게 전파되었다.
⑤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이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답: ②

* 조선 후기 천주교에 대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천주교이고 제사의식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출전은 '상재전서'이다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됨.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 경.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생활(권철신, 정약용 등)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1783)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짐.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점차 교세가 확창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자 드디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던 시파가 정권을 잡았으므로 큰 탄압이 없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에 노론 강경파인 벽파가 집권하면서 대탄압이 가해졌다(1801). 이 사건으로 천주교 전래에 앞장을 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천주교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기에 탄압이 완화되며 백성들에게 활발히 전파되었다.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서양인 신부들이 몰래 들어와 포교하면서 교세가 점차 확장되었다.

① 최초의 영세(세례)자는 이승훈 (1756~1801): 신유박해 때 순교

② 안정복은 '천학문답' 에서 천주교를 논리적으로 비판(남인 중 공서학파)

31. 다음 지도는 농민 봉기가 일어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 시기 농민들의 가상 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갑 : 요즘이 더 살기가 힘든 것 같아. 우리가 남의 땅을 부치는 형편이니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바치는 것은 그렇지만, 왜 지주들이 바쳐야 하는 전세도 우리가 바친단 말인가?

을 : 그거야 정부에서 소작을 금지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병 : 지주도 지주지만 아전들의 횡포도 무시 못해.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군포를 아직도 내고 있다네.

정 : 그러게 나도 군포 때문에 죽겠네. 우리 동네에서 계를 만들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군포를 함께 내는 것이 어떻겠나?

무 : 그래, 그 의견도 좋네. 그런데 일본으로 미곡을 수출한 뒤로 쌀값이 폭등했다고 하니까 이자를 받는 것보다 그쪽에 다 파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① 갑, 을 ② 을, 무 ③ 갑, 병, 정
④ 을, 병, 무 ⑤ 병, 정, 무

정답: ③

* 임술 농민봉기(1862) 당시의 상황

진주 민란을 시발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함흥까지 휩쓸었던 동시다발적 전국적 봉기. 세도 정치기의 대표적인 농민 봉기의 주된 원인은 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환곡)이다

갑: 소작농에 대한 병작반수의 전세와 지주의 전세 전가(○)

을: 소작 금지는 없었음(x)

병: 향리들의 비리와 백골징포의 군역 폐단(○)

정: 농민 계층 사이에서의 경제적 모임인 '계'의 유행(○)

무: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은 개항(1876) 이후이므로 해당시기가 아니다(x)

3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는 청과 조약을 맺은 지 십여 년 동안 조그마한 분쟁도 없는 나라라고 했다.
- 만인소(萬人疏)에서는 일만 리 바다 건너 있는 이 나라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의 한국 보호권을 승인한 것에 대해 고종은 이 나라에 '거중 조정'을 요청했지만, 이 나라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① 1885년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②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 문서를 약탈하였다.
③ 용암포 조차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④ 1883년 보빙사 일행이 이 나라에 국서를 전달하였다.
⑤ 이 나라의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다.

정답: ④

* 개항기의 미국

• 러시아 견제책의 일환으로 조선책략에 연합의 대상이며, 영남만인소의 비판의 대상이고, 을사조약 당시 거중조정 조항으로 협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미국에 대한 설명이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에 따라 1883년 미국 공사가 조선으로 부임하자, 그해 7월 고종은 답례 사절로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보빙사를 파견하여 미 대통령을 접견하고 국서를 전달하였다.

일행 중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덤머 아카데미를 다녔고 이후 유럽 등도 순방하고 1885년 귀국하였다.

① 거문도 사건의 주역은 영국(1885)

② 병인양요의 침략국은 프랑스(1866)

③ 용암포 조차 시도는 러시아(1903)

④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되었음(1883)

⑤ 한반도 중립화론의 주창자 부들러는 독일 영사(1885)

33. 다음 그림은 특정 질병과 관련된 것이다. 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것은? [3점]

약방에서 또 들어와 진료하였다. 이때 임금의 열후(熱候)는 이미 물러갔으나, 반점이 있기 때문에 두증(痘證)임을 의심하고, 주사(朱砂)를 먹으면 쉽게 투출(透出)할 수 있다 하여 올리기를 청하여 임금이 복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

① 이 병의 퇴치를 위해 민간에서는 배송굿을 벌였다.
② 이 질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③ 정약용은 이 질병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④ 이 병이 유행하면 그 창궐을 막기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⑤ 왕이나 왕세자가 이 병에서 회복하면, 이를 기념하는 경과(慶科)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시대 천연두 치료

역사 속에서 허준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바로 천연두 때문이다. 허준이 양예수를 제치고 선조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광해군의 천연두 때문이었다. 허준은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함으로써 선조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었고, 결국 <동의보감>을 쓴 명의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실제로 허준은 천연두를 다른 전염병과 명확히 구별했다.

또한 18세기 정약용은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하였으며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① 배송굿: 역신(천연두)을 내쫓기 위한 굿

② 상기의 자료에서 보듯이 광해군 때 이미 허준이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함으로 보아 이미 이 질병은 적어도 17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④ 전염병이므로 사람들이 모이는 제사를 드리기 힘듬

⑤ 왕.세자 등의 질병 회복은 국가의 경축일이므로 경과(慶科) 과거를 치루었다.

34. 다음 예술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비 맞은 제비같이 갈짓자 비틀 걸음 정황 없이 들어가서 제 방으로 들어가며, 항단 발 걷고 문 닫쳐라. 침상 편시 춘몽 중에 꿈이나 이루어 가시는 도련님을 몽중에나 상봉하지 생시에는 볼 수가 없구나. 방 가운데 주저앉아, 아이고 어쩌리. 도련님을 만나기를 꿈속에서 만났는가. 이별이 꿈인 거나. 꿈이거든 깨워 주고 생시거든 님을 보세. 베개 위에 엎드리어 모친이 알까 걱정이 되어 크게 울든 못하고 속으로 느껴 주어, 아이고 언제 볼꼬. 우리 도련님이 어디만큼 가셨는고. 어디 가다 주무시는가. 날 생각고 울음을 우는 거나. 진지를 잡수었는가, 앉았는가, 누웠는가, 자는 거나. 아이고 언제 볼꼬.

〈 보 기 〉

ㄱ. 지방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누어진다.
ㄴ. 옥계시사와 서원시사를 중심으로 널리 성행하였다.
ㄷ. 신재효가 12마당을 6마당으로 정리하였다.
ㄹ. 무당의 굿 음악인 시나위로 발전하였다.
ㅁ.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으로 선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③

* 조선 후기 판소리

자료는 판소리 중 '춘향가'의 일부분이다.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기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인기 있는 분야는 판소리와 탈춤이었다. 판소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엮어 가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광대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빼거나 더할 수 있었고, 관중이 추임새로써 함께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을 포함한 넓은 계층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판소리는 이 시기 서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판소리 작품으로는 열두 마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등 다섯 마당만 전하고 있다. 신재효는 19 세기 후반에 이런 판소리 사설을 창작하고 6 마당으로 정리하였다.

㉠ 판소리는 호남의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누어지고 동편제 중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승된 것이 중고제이다

㉡ 시사란 시를 짓고 즐기기 위하여 모인 모임으로 요즈음의 시동인과 같은 것이므로 판소리와는 다르다

㉣ 시나위는 한국 무속 음악의 일종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기악곡이므로 판소리가 갈래가 다르다

㉤ 판소리는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제 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35. 지도는 어떤 사건의 경과를 표시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①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 대부분은 일본에 망명하였다.
② 사건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③ 사건의 주도 세력은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 강화를 지향하였다.
④ 청군이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성 부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⑤ 청·프 전쟁으로 인해 조선에 주둔해 있던 청군의 일부가 철수한 것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정답: ③

* 갑신정변(1884)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헌법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혜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모두 일단 일본으로 망명하였다(서재필만 일본->미국)

② 민씨 정권은 청의 원병을 통해 정변을 진압하였으므로 더욱 청의 간섭이 심화되었다.

④ 당시 일본 공사관은 조선 병사와 난민의 습격을 받아 수명의 일본 사람이 학살당하였고 이는 한성조약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배상금 지불)

⑤ 청.프 전쟁(1884)으로 인한 조선 주둔 청군 일부의 철수는 정변을 추진할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3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폐는? [2점]

> 1894년, 신식 화폐 발행 장정에 따라 은화의 보조 화폐로 발행되었다. 대한 제국은 이것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
> 금에 대한 은의 국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것의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실질 가치가 하락하자 "맹전(盲錢-눈먼 돈)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비난을 샀다.

정답: ①

* 개항기의 화폐 백동화

백동화: 1892년 전환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5푼(二錢五分)의 동전. 1905년 일제에 의한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그 결과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개항 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민씨 정권이 이를 타개하려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주조하여 유통시켰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조세금납화의 조치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따른 은본위제가, 1901년에는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한 금본위제가 실시되면서 이 화폐는 보조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궁핍으로 본위화폐가 거의 주조되지 않는데다 이를 뒷받침할 금융기관 ·징세기구 등이 발달하지 못하여 화폐제도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특히 정부가 수익만을 위해 백동화를 남발한 탓에 엄청난 양의 불법 ·불량 백동화가 유통되면서 가치하락은 물론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① 백동화
② 상평통보
③ 당오전: 1883년~1895년까지 통용된 화폐로서 당시 민씨 정권이 국교 확대(개항)에 따른 각종 경비를 충당키 위해 발행하였으나 명목가치가 실질가치의 2~3배밖에 안 되는 조악한 화폐였고 민간에서도 당오전을 위조함에 따라 물가는 더욱 급등하였다

④ '일환' 은화: 경성(또는 인천) 전환국(1885)이 발행한 신식 은화. 널리 통용되지 못하고 곧 중단되었으며, 곧이어 발행된 백동화(1892)가 화폐정리사업(1905) 실시 이전까지 널리 통용되었다

⑤ 조선통보: 고려 말에 등장하여 유통되던 저화의 가치가 날로 떨어져서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세종 때(1423) 그 보완책으로 주조되었다. 저화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사섬서(司贍署)에서 관장하여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37.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그가 역임한 관직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1854년, 함경북도 명천 출생
1897년, 전환국장 ····· (가)
1900년, 내장원경 ····· (나)
1901년, 지계아문 총재관 ····· (다)
1902년, 서북철도국 총재 ····· (라)
1903년, 탁지부 대신 ····· (마)
1907년, 사망

① (가) - 1883년에 설치되었던 상설 조폐 기관
② (나) - 1883년에 보상·부상을 통괄 관리하고 외국 상인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기관
③ (다) - 대한 제국 때 전토문권(田土文券)을 관장한 관청
④ (라) - 1902년, 서울과 신의주 사이에 경의선을 부설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
⑤ (마) - 조선 말기와 대한 제국 시기에 국가 재무를 총괄한 중앙 행정 부서

정답: ②

* 이용익과 대한 제국의 관직

이용익(1854~1907): 한말의 정치가. 보부상 출신이며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주도하였고, 개혁당을 조직하여 친일파와 맞섰다. 보성 학원(고려 대학교)을 설립했으며 해외에서 구국 운동을 펼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망하였다.

(가) **전환국**: 조폐(화폐발행) 기관(1883)

(나) **내장원**: 조선 후기 왕실의 재산인 전토(田土)·미포(米布)·전화(錢貨)를 관리한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내수사(內需司)를 개편 설치한 것이다.

보부상 단체: 보상.부상을 통괄 관리하고 외국상인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된 기관은 '혜상공국'(1883, 군국아문 소속)이고, 이후 상리국(1885, 내무부 소속, 부상은 좌단, 보상은 우단 -> 1894, 농상아문)을 거쳐 황국협회(1898)에 소속되었다가, 1899년 상무사 소속, 진명회(1903) 소속, 공진회(1904) 소속으로 바뀌었다.

(다) **지계아문**: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양전사업 후 토지증서인 지계발급을 관장하던 관청

(라) **서북철도국**: 서북지역 간선 철도인 경의선(서울-신의주) 부설과 관련하여 설치된 기관

(마) **탁지부:** 2차 갑오개혁 때 재정 일원화 정책으로 설치된 재정 총괄 관청

38. 다음 자료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그토록 작은 공간에, 그리고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탄환과 포연이 집중되는 것은 남북 전쟁의 고참들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 그들은 난간에 올라서서 용맹스럽게 싸웠다. 그들은 미군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그들은 창과 칼로써 미군을 대적했다. 손에 무기가 없는 그들은 흙가루를 집어 침략자들에게 던져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

–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1882) 중에서 –

〈보 기〉

ㄱ. 미군은 강화도의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잇달아 공격하였다.
ㄴ. 미군은 강화 읍성을 점령한 후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났다.
ㄷ. 흥선 대원군은 이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ㄹ. 미군이 빼앗아 간 수자기(帥字旗)가 일시 귀환되어 최근에 전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신미양요(1871): 조선-미국 간의 전투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가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의 책임 응징을 위해 강화도로 진격하여 강화도 남부 '초지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해협을 거슬러 올라가 덕진진, 광성진(보)을 일시 점령하였으나 조선군은 강렬한 저항으로 광성진, 갑곶 등지에서 패퇴시켰고 이 과정에서 어재연 장군이 광성진에서 전사하였고 장수기를 빼앗겨 미국에 보관되다 2007년 반환되었다

대원군은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물리친 후 서양 세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고,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의 수교를 거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1871).

㉡ 미군은 강화 읍성을 점령치 못하였다

39. 자료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에 진도 7.9의 강진이 밀어닥쳐 14만여 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가옥 57만 채가 전파(全破), 소실됐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이날은 '학살의 날'로 기록돼 있다. 지진 후 공황 상태에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악성 유언비어가 퍼져, 6000여 명의 재일 동포들이 일본인 손에 무참히 학살당했다. …… 조선인 학살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처럼 자경단이나 경찰에 의해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었다. 치안 유지를 위해 도쿄 시내에 들어온 군대까지 가세했다.
>
> -「○○일보」-

①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하여 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②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군대와 민간인들이 조선인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③ 당시 일본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성장, 쌀 소동, 공산당의 성립에 따른 혼란이 격화되었다.
④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보수적 감정을 이용하여 이 위기를 무마하고자 하였다.
⑤ 대학살 이후 일부 자경단원은 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모두 석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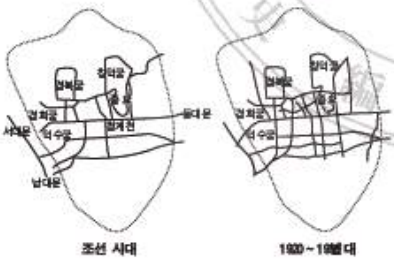
정답: ①

* 관동대학살(1923)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수습과정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조장되어 조선인 대량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 9만9,331명, 행방불명 4만3,476명, 가옥 전파(全破) 12만8,266동, 반파(半破) 12만6,233동, 소실 44만7,128동, 유실 868동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일본 내각은 흉흉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조선인의 배후에는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키고 이것을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가 기정사실화됨으로써 일본인들이 대대적인 조선인사냥이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3,689개의 일본인 자경단(自警團)이 조선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의 숫자는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500명이 넘고, 문헌에 따라서는 6,000명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 혼란을 조선인들에게 우호적인 좌익 세력을 뿌리뽑기위한 기회로 삼아, 노동운동가 히라사자와 게이시치(平澤計七), 사회주의지도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부부 등 일본의 진보적 인사 수십 명을 검거해 살해했다.

① 당시 조선 내의 각 언론계 출판물은 물론 왜지의 각 신문, 잡지의 한인학살에 대한 보도를 일절 금지하고 오히려 한인의 이재민을 구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는 선전적 기재를 장려하였으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40. 조선 시대와 1920~1930년대 서울 가로망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통감부 시기부터 행해진 도성 해체 등에 따라 도시 구조는 기반부터 변화되었다.
② 시구 개정 사업은 굽은 중심부 도로의 직선화, 도로 폭의 확대와 일부 도로의 신설 사업이었다.
③ 총독부의 시가지 건축 규제 규칙은 가로 건물의 크기, 형태를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였다.
④ 시구 개정 사업 결과 서울 중심부의 가로가 정(丁)자형의 구조에서 남북 도로축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⑤ 남북 도로망의 개발로 남촌은 일본인의 상업 중심지로, 북촌은 일본인의 주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정답: ⑤

* 일제 시대(1920~30년대) 서울의 구조

청계천을 경계로 남쪽의 일본인 거리는 남촌, 북쪽의 한국인 거리는 북촌이라 불리웠다. 따라서 당시 남촌의 거리는 서울의 정치와 상업 중심지로서 관공서, 은행, 백화점, 상가, 도로포장, 신호등, 가로등, 네온등등 근대도시의 겉모습을 갖추었으나 북촌의 거리는 그렇지 못하였다.

⑤ 북촌은 한국인 주거지역이다

41. 만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1점]

① 만주 사변 ② 6·25 전쟁 ③ 중·일 전쟁
④ 청·일 전쟁 ⑤ 베트남 전쟁

정답: ③

* 총동원령(1938)

"...국가 총동원하는 이 때에.."가 힌트이고 국가 총동원령(1938)은 중일 전쟁(1937)이 직접적 배경이다

1930년대에 일제는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다(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38년 국가 총동원령).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42. 다음 신문 자료에 제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조선사람조선것◇
土産奬勵 今日부터實行 自作自給
◇내살림내것으로◇

① '일본 상품 배척'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초기부터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② 한말의 국채 보상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1920년에 조만식이 평양에서 시작했다.
③ 시간이 갈수록 일제와 타협하는 민족 개량주의 성격이 드러나 점차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④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생필품의 가격이 치솟아 상인이나 자본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⑤ "민족의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려면 외화를 배척하고 불편하나마 국산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어났다.

정답: ①

* 물산장려운동(1920년대 초반)

" 내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라는 구호를 볼 때 물산장려운동(국산품애용운동)이다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이듬해 서울로 확산되었고, 1923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였고,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가 중심되어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전개된 청년 단체들의 금주 단연 운동, 자작자급 운동, 소비 절약 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민족 자본은 물산 장려 운동으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토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세민의 생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켰다. 또한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① 이 운동은 우리 토산품을 쓰고 불가피한 경우 외국물품을 쓸지라도 실용적인 것을 쓰자는 것이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일본상품을 배척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② 국채보상운동(1907, 나라빚 갚기 운동)과 같은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③ 우선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자본가나 상인층 등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부 자신들의 이해문제와 연관된 입장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④ 국산품 애용 수요는 결국 물가상승을 자극하여 국내 부르주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었다

⑤ 국산품애용을 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자는 취지이다

43. 다음 지도에 표시된 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러시아는 일본의 요동 반도 점령을 막은 대가로 청나라와 협상해 ㉠의 부설권을 얻었다.
②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의 부설권을 이양받았다.
③ 간도 협약의 결과, 일본이 ㉢의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④ ㉣의 부설권을 획득했던 프랑스가 러·일 전쟁 중 일본에 권리를 양도하였다.
⑤ ㉤은 우리나라에서 경인선에 이어 두 번째로 개통되었으며, 1905년부터 운행되었다.

정답: ④

*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 관련 철도

㉠ 동청철도
㉡ 남만주지선
㉢ 안봉선
㉣ 경의선
㉤ 경부선

① 1896년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통해 그 댓가로 청으로부터 획득한 철도이다
② 1898년 러시아가 여순, 대련 을 청으로부터 조차하여 이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으나 러일전쟁 패배로 일본에게 넘어갔다
③ 간도협약(1909)으로 안봉선과 간도를 청과 일이 각각 교환하였다
④ 경의선 철도부설권은 프랑스가 본래 최초 획득하였으나(1896.7) 재정부족으로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고(1899.6), 러일전쟁이 발발하며 일본이 불법적으로 획득하였고(1904.3) 1906.4에 완전 개통되었다.

* 경원선: 1899년 대한제국 정부는 서울~원산·경흥 간의 철도 부설권을 국내 철도용달회사에 주었으나, 자금 관계로 착공을 못하던 중 1905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군사상 필요성을 느낀 일본이 경의(京義)철도·마산포(馬山浦)철도와 경원군용철도 부설권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월 용산(龍山)과 원산에서 기공식을 열었으며, 1910년 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 총독부 철도국으로 이관되어, 1914년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⑤ 경부선은 처음부터 일본이 부설권을 획득하고 경인선(1899)에 이어 두 번째로 1904.11에 개통되었다

44. 2009년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세계 무형유산을 모두 고른 것은? [2점]

(가)

강강술래

(나)

처용무

(다)

영산재

(라)

강릉단오제

(마)

남사당놀이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나),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정답: ②

* 2009년에 선정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총 5개 등재

강강술래, 영산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처용무, 남사당놀이이다

(라)의 강릉단오제는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에 선정되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5.18
판소리	2003.11.7
강릉 단오제	2005.11.25
강강술래	2009.9.30
남사당	2009.9.30
영산재	2009.9.30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9.30
처용무	2009.9.30
가곡	2010.11.16
대목장	2010.11.16
매사냥	2010.11.16

45. 다음은 일제 강점기 어느 학교 개교식 참관기의 일부이다. 이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예과와 법문학부, 의학부만 완성하는 데 임시비만 500만 원가량 들었고, 경상비는 매년 40~50만 원이었다. 조선에 있는 10여 개 전문 학교 경상비를 다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 그 엄청난 경비는 물론 조선인의 고혈을 짜내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충당됐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조선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168명 학생 중에서 조선인은 고작 44명이었다. 출입문에서 사무원이 주는 그 학교 일람 비슷한 인쇄물을 읽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서글픈 느낌이 전광같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① 1930년대 우리 역사와 우리말을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② 일제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에 찬성하여 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③ 일제 강점기 최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졸업생의 다수가 관료로 사회에 진출하였다.
④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주시경과 이승만을 배출하였다.
⑤ 교육 구국의 이념 아래 설립한 학교로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 교육 기관이었다.

정답: ③

* 경성제국대학 설립(1926)

1924년 '경성제국대학관제'가 공포된 후 1926년에 문을 열었다. 1920~26년에 전개되었던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에 대응하여 일제가 조선사람의 민족대학 설립의 열기를 식히고 회유하려던 의도로 설립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조선사람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이공 등의 학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문학부·의학부만 설치함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후 경성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공포되어 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전문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이학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국립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다.

① 조선학운동은 문일평.정인보.안재홍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② 민립대학운동을 방해키 위해 설립되었다
③ 맞는 진술이다
④ 배재학당(1885)
⑤ 보성전문학교(1905, 이용익 설립) -> 고려대학교

46. 다음 일제 강점기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이 정책은 체제 안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빈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 일반을 체제에 순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 정책의 시행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촌 내 활성화는 거꾸로 말하면 일제와 민족 운동 세력 간의 '농민 획득 경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 일제 스스로는 '농가 갱생 계획' 실시 이후에 '식량의 충실', '부채 상환', '현금 수지 개선'이라는 이른바 '갱생 계획의 3요점'은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① 소작 조정령을 제정하여 소작인에게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였다.
②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미곡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③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④ 수리 조합령을 제정하여 미곡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정답: ①

* 소작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키 위한 **농촌진흥운동**(1932년~1940년)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1932년~1940년 사이동안 전개하였던 관제농민운동. 총독부는 당시 농촌경제의 몰락에 따른 소작농 및 농민들의 사회불안 억제와 소작농,농민들의 불만 및 각종 소작쟁의 운동 활성화를 통제하는 한편, 본격적인 중국대륙 침략전쟁을 앞두고 '황국신민화'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개하였던 일종의 사회 교화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농민,소작농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는 커녕, 전시동원 협력체제의 극대화를 위한 사전 포석 정책에 불과한 관제운동으로 1940년 12월, '국민총력운동'으로 대체됨에 따라 농촌진흥운동은 자연히 끝을 내게 된다.

① 이 시기에 소작조정령을 통해 소작농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하고 지주들을 관치로 통제하려 하였다
②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설명(1920년대)
③ 토지조사사업(1910년대)
④ 산미증식계획의 일환(1920년대)
⑤ 총동원체제(1938년 이후)

47. 다음은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 발표된 어느 단체의 창립 선언문이다. 이 단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는 단결된 전민족의 역량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 혁명은 민족 혁명이며, 우리의 전선은 민족 전선이다. 계급 전선도 아니고 인민 전선도 아니고, 프랑스·스페인 등의 국민 전선과도 엄격히 구별된다.

〈보기〉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ㄴ. 이 단체의 산하에 조선 의용대가 조직되었다.
ㄷ. 좌우 합작의 성과로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ㄹ. 독립 운동 단체들의 통합 움직임 속에서 창립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조선)민족혁명당(1935)

1935년 7월 난징 [南京] 에서 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독립당·의열단의 5당 대표 14명이 모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이것은 동맹의 연합체적 성격을 넘어서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통일전선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한국독립당 내의 일부 세력이 불참했다. 민족혁명당은 인민전선론의 영향으로 1937년 12월 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청년전위동맹·조선혁명자동맹 등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 결성했으며, 1938년 10월에는 산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조직하여 활발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41년부터는 독립운동 정당과 단체가 연합전선을 이룬 임시정부에 참여했고, 1942년 7월 산하 군사조직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 의열단계열(김원봉)이 주도로 조직된 좌우연합전선
㉡ 1938년 10월에는 산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조직
㉢ 중요한 김구(아예 처음부터 불참, 지청천(후에 탈퇴) 등의 우파세력의 이탈 등으로 주로 좌파계열 만이 남게 되어 좌우합작의 설과물인 창립선언문은 도출되지 못하였다.
㉣ 민족유일당 운동(좌우연합전선)의 일환으로 창립되었다.

48.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2점]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되, 그 명목은 '독립 축하금'으로 한다.

↓

(가)

↓

•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미국은 아시아 각국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① 박정희와 일부 육사 출신 장교들에 의해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② 박정희 정권은 평화 통일과 국민 총화를 명분으로 유신 체제를 선포했다.
③ 한국은 북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련·중국 등과 수교 관계를 수립했다.
④ 미국은 카터의 '인권 외교'를 철회하고, 동아시아에서의 반소 블록을 강화하였다.
⑤ 미국 선박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의하여 원산 앞바다에서 납치되었다.

정답: ⑤

* 한일국교정상화(1965)와 닉슨독트린선언(1969) 사이의 역사적 사실

① 5.16군사정변(1961)
② 유신체제 시작(1972)
③ 소련,중국과 수교(1990, 1992)
④ 미 레이건대통령의 외교정책(80-88)
⑤ 푸에블로호 사건(1968)

49. 다음 교과서가 발간된 시기의 교육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마을 밖 큰 길가에 부서진 탱크가 들어져 있읍니다.
작년 여름에 공산군이 타고 쳐 들어온 탱크입니다.
여기저기 총알을 뚫은 자국이 있읍니다.
쇠바퀴가 끊어져서 달아나지를 못했나 봅니다.
부서진 탱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들어져 있읍니다.

마을 아이들이 이따금 부서진 탱크에 모여서 놉니다.
안에 들어가서 만져보기도 합니다.
대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도 합니다.
철수는 방을 내다보며,
"총공 오랑캐들아, 뎀벼라!"
하고 소리쳤읍니다.

① 6·3·3 학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② '전시하 교육 특별 조치 요강'이 공포되었다.
③ 노천이나 가건물에서도 수업이 진행되었다.
④ 피난 학급이 설치되고 피난 학교가 개설되었다.
⑤ 교육 자치제가 시작되어 의무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답: ①

* 50년대 교육의 특징

6.25 전쟁이 언급된 반공위주의 내용으로 보아 이승만 정권의 6.25 이후(50년대) 시기의 교육제도를 물어보는 보는 것이다.

① 6.3.3 학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광복 이후 미국식 교육제도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다.(1949.12.31 제정되어 1950년부터 실시되었다. 따라서 6.25가 언급되는 교과서는 나올 수가 없다.)
② 전시하 교육 특별조치요강: 1951.2월에 공포되었다
③ 6.25전쟁 중에도 높은 교육열로 인해 가능했다
④ 상동
⑤ 교육자치제는 1949년에 제정되어 6.25 전쟁으로「교육법시행령」의 제정 공포가 늦어져 그 실시를 보지 못하다가 1952년 4월에 실시되었다

50. 자료의 내용과 관련되어 나타난 사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양반층이 증가하고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등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하였다. 이는 농업 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농업 경영의 변화, 상공업의 발달에 힘입은 바 컸다. 또한,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농민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분 상승 운동과 농민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① 수령권의 강화로 지방 향리들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② 부농층의 향임직 진출로 향촌 사회에서 향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③ 서얼은 통청 운동을 벌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 서민들은 족보를 위조하거나 납속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하였다.
⑤ 민간 사회에는 미륵 신앙이나 정감록 등과 관련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정답: ①

* 조선 후기 향촌의 변동 상황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였던 사족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부농층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부농층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에 참여하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향전). 이로 인하여 조선 후기 향촌 사회는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 세력이 강화되었다.

① 관권의 강화는 수령뿐만 아니라 향리 세력의 강화도 가져왔고 이는 농민 수탈로도 이어졌다
② 상기의 내용
③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동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④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또는 역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양반 신분을 사거나(납속책, 공명첩)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⑤ 세도정치기 사회가 불안하며 비기, 도참설이 유행하고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과 미륵신앙이다